

건축사!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소통과 변화

Search for lost-dream of Architects



정병협 | Chung, Byung-hyup, KIRA
나은 건축사사무소

약력

- 홍익대학교 건축과
- 건축사지편찬T/F위원회 위원
- 서울시건축사등산동호회 부회장

세월이 참 빠르다. 여름의 긴 장마와 태풍, 산사태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가을이 오기가 싶더니 벌써 입동(立冬)이 지나간다. 곧 한 해가 마무리 되겠지만, 올 초 야심차게 세웠던 목표들이 무엇 하나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세상이 갈수록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건축사 업무수행을 위해선 공부할 것은 많아지고, 건설 경기 불황으로 열심히 배운 것을 활용할 기회는 별로 없으며 실질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 만나는 건축사들마다 더 이상 견뎌내기 힘들고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설계, 감리비 단가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건축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술자들의 거센 압박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설계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주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건축사들에게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예전의 건축사는 창의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건축물을 창조해내는 '종합예술가'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살아왔으며 건축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구조, 설비 등 관련 기술자들은 물론 부동산 업자들에게까지도 끌려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건축사! 이제는 잃어버린 꿈을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힘을 길러야 건설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그 동안 잃어버렸던 전문가로서의 위상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우리 스스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건축 공학적인 디테일에만 치우쳤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문·사

회·과학적인 요소가 융합된 인간의 삶에 기초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의 전반에 걸친 흐름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 정보의 네트워크(Network)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회는 건축경기의 심각한 위축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는 '힘없는 건축사'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협회 예산에서 많은 비중의 회비를 내고 있는 그들은 협회 임원도 아니고 대의원도 아니면서 '평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기에 건축사협회는 그들이 실질적인 주인이며, 집행부나 '힘 있는 건축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건축사들의 합당한 위상과 권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초, 문경 주호산에서 열린 '대한건축사 등산대회'에 다녀왔다. 약간 쌀쌀한 날씨였지만 전국에서 모인 400여명의 건축사들과 가족들이 참여하여 화려하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서로의 친목을 다지고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우리는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회원들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방법과, 거스를 수 없는 자연 앞에서 인생의 진리를 배우게 된다. 험준한 계곡과 능선을 거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오른 산 정상에서는 대자연의 풍광 앞에 찬양과 감탄을 토하고, 하산할 때는 지평선 너머로 펼쳐지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면서 자연과 소통하며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다.

저녁노을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는 태양을 내일 아침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건축사들이여, 희망을 가지고 서로 소통과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시대를 다시 만들어 나가자! ■